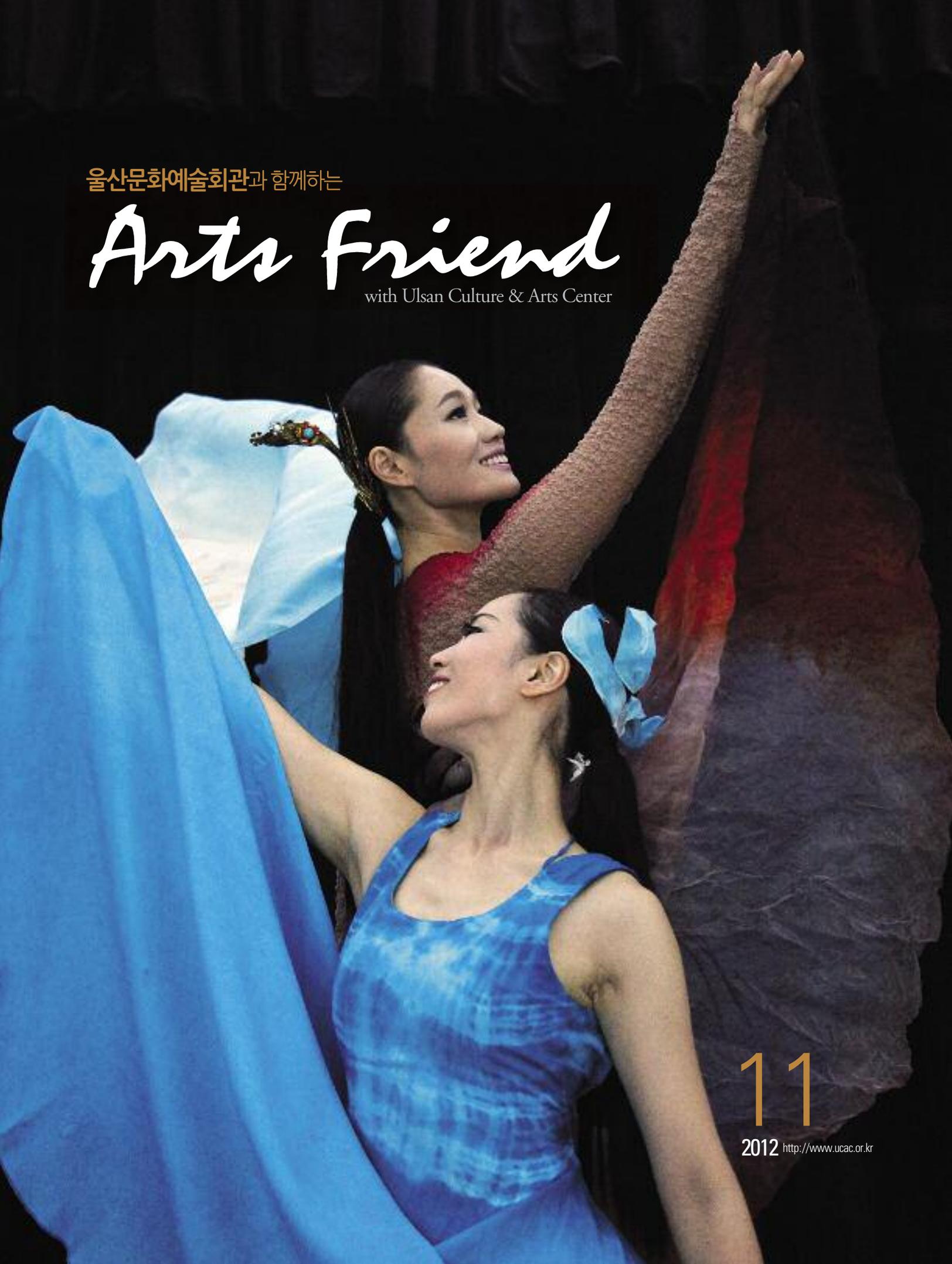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1

2012 <http://www.ucac.or.kr>

OD Musical Company presents

뮤지컬  
기린의 **아이드**  
울산공연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2012년, 4개월 간의 전국 투어

대한민국 1%의 선택! 전회 기립박수의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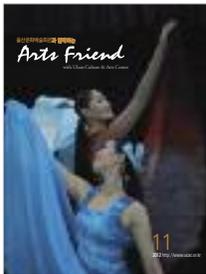
2012년 **12월 29일(토)~30일(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 VIP석 110,000 R석 90,000 S석 70,000 A석 50,000 공연시간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공연문의 및 예매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www.ucac.or.kr](http://www.ucac.or.kr) / 275-9623**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문화재단 (주)OD 울진문화재단 개편 OD오디뮤지컬 M극장

Created by the song by Glenn Carter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lie Dickson | Music by Frank Wildhorn | Set and Costume Design by Kim Seon-yeop  
Arranged by Jason Highland | Directed by David Swat



COVER STORY |

울산시립무용단 제30회 정기공연 'AD. 암각화'는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를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 삶과 사랑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와 수상공연을 연상하게 하는 드림 퍼포먼스 등 다른 공연에서는 보기 힘든 역동적인 공연과 열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 04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7번'  
 [무용단] 제30회 정기공연 'AD. 암각화'  
 [교향악단] 수능음악회 '시네마 콘서트'  
 [합창단] '2012 수능음악회'  
 [교향악단] 청소년음악회 '시네마콘서트'
- 11 ■ 기획공연**  
 '잉거마리 울산내한공연'  
 김호영의 '뮤지컬 파티'  
 추억의 명곡 콘서트 '향수'
- 15 ■ 예술을 말하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상파울루  
 이탈리아 오페라(1)  
 '사계'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한 음악가 '비발디'
- 35 ■ 11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11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11월호 | 통권 제159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과상희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2012 명작시리즈Ⅶ

# 베토벤 교향곡 7번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2012. 11. 9(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피아노 김정은(이화여대 교수)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베르디 | 나부코 서곡  
 슈만 |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54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오는 11월 9일(금) 저녁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제161회 정기연주회는 부드러운 카스리마와 완벽한 지휘법을 구사하는 마에스트로 김홍재가 지휘하는 올해 마지막 명작시리즈로 ‘베토벤 교향곡 7번’이 연주되어진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다.

이번에 연주될 베토벤 제7번은 베토벤의 후기 작품에 속하며, 그전 교향곡인 6번(1808)작곡 이후 3년 이상 지나 작곡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베토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를 겪게 된다. 누구보다 존경했던 나폴레옹에 대한 실망감과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했고, 1811년 베토벤은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휴양을 위해 온천이 있는 테프리즈로 간다.

이 곳에서 베토벤은 테프리즈에서의 생활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런 즐겁고 밝은 기분이 작곡에 반영되었다. 사실 1811~1812년의 작품은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거의 밝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베토벤은 일찍이 “나는 인류를 위해 좋은 술은 빛는 바커스(술의 신)이며 그렇게 빛어진 술로 사람들을 취하게 해준다”라고 했다 하는데 그의 수많은 걸작 중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 그의 7번 교향곡이다. 또한, 서곡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서곡이 연주되어지며, 협주곡으로 베토벤으로부터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은 독일의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슈만의 피아노협주곡이 함께 한다.

**대범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김정은**

대범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피아니스트로 평평이 나있는 김정은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독하여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독주 및 실내악 콩세르티스트 과정을 마쳤다. 포르투갈 포르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4위, 스페인 호세 이투르비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칠레 루이 시갈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의 성공적인 독주회를 포함하며, 파리, 독일, 스위스에서 초청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로 활동하였다.

특히 파리 쇼팽 협회에서 주최하는 쇼팽 페스티벌과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초청 독주회 등 유럽 등지의 페스티벌에서 그녀의 연주는 관중들에게 더욱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바덴바덴 필하모니, 보고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칠레 심포니, 포르투 라디오 오케스트라,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뉘른베르크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수차례 호흡을 맞췄다. 서울시향, 수원시향, 광주시향(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강남심포니, 부산시향(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대구시향(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과의 협연을 통해 그녀의 실력을 입증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학과에 재직 중이다. 슈만 피아노 협주곡은 고도의 연주 기술과 풍부한 인간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노 협주곡으로 초연 당시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이 협연하였다고 한다. 피아니스트 김정은이 들려 주는 슈만의 피아노협주곡을 통해 깊어가는 늦가을의 낭만을 만끽하시길 바란다.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울산시립무용단 제30회 정기공연]

# A.D. 암각화

울산시립무용단  
2012. 11. 2(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안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특별출연 김외섭(무용협회 울산지회장),  
김미자(무용협회 울산지회 고문)  
대현고등학교 기계체조부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p r o  
g r a m

- 프롤로그 | 별빛과 풀꽃이 만나는 암각화
- 일어서는 영혼들의 외침
- 흠바람이 불어 피어오르는 숨결
- 햇살을 머금은 산하
- 풀빛 영혼의 노래
- 내 물빛의 사랑
- 먹구름 몰려오는 대곡나루 암각화
- 풀꽃으로 다가가는 사랑
- 풀빛 영혼의 노래
- 절망의 상처 치유하는 생명의 암각화
- 에필로그 | A.D. 암각화

울산시립무용단은 오는 11월 2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창작 무용 'A.D. 암각화'를 선보인다.

'A.D. 암각화'는 암각화를 단순한 바위그림이 아닌 기원전부터 기원 후까지 지속되는 문명의 기원이자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인식과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아기고래와 배가 불룩하여 새끼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동물의 모습, 교미하는 동물의 모습에서 암각화가 지니는 생명성을 모티브로 자연과 인간, 삶과 사랑을 춤의 상징적인 미학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세트와 수상 공연을 연상하게 하는 물보라가 튀는 다이내믹한 드럼 퍼포먼스 등 타 공연에서는 보기 어려운 역동적인 무대와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29회 정기공연 '꽃길 바람에 피고지고'에 이어 울산시립무용단에서 선보이는 제30회 정기공연 'A.D.암각화'는 또 하나의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탄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글 |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 수능음악회 시네마 콘서트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11. 16(금) 10: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중규(부지휘자)  
입장료 전석 무료

※ 본 공연은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획  
공연으로 울산지역 고등학교의 단체관람  
만 가능합니다.



## program

이번 11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 기획연주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음악회로 영화 속에서 더욱 빛나는 클래식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음악회로 개최된다. 울산시립예술단의 입시와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정서함양과 마음의 안식이 될 이번 공연은 울산지역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루어지며, 영화 속에 감추어진 클래식 음악을 새삼 재발견하는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재미있는 영화해설과 주요 영화 장면, 거기에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클래식음악이 어우러진 이번 연주회를 통해 클래식음악의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관객들은 관람이 불가하며,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접수기간 내에 선착순 신청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 오프닝

빌리 엘리어트 /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中 피날레

###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1악장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 1악장

### 시네마 성악곡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모차르트 '미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파리넬리 / 헨델 '리날도' 중 '날 울게 하소서'

인생은 아름다워 /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중 '벧노래'

### 아시아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 엘가 '사랑의 인사'

4월 이야기 /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5번'

### 'Star Wars' Suite for Orchestra

1. 메인 타이틀 Main Title

2. 레이아의 테마 Leia's Theme

3. 제국의 역습 The Imperial March

4. 요다의 테마 Yoda's Theme

5. 엔딩 타이틀 Throne Room & End Title

수능음악회는 입시를 준비하며 지친 심신을 격려하고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울산지역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음악회로 준비하였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클래식 공연감상의 기회를 가지고 동시에 공연장에서의 관람예절을 익히는 등 예술적 체험과 더불어 교과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능음악회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은 조금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고전적인 틀을 벗어나 수험생들의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을 중심으로 인기 대중가요를 합창곡, 독창, 이중창 등으로 편곡하여 연주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학창 시절의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 오프닝 무대
  - 우정의 노래
  - 고향의 노래
- 사운드 오브 뮤직 합창 모음곡
- 뮤지컬 명곡
  - 노트담 더 파리 中 Le temps des cathedrales(대성당들의 시대)
  - 노트담 더 파리 中 Belle(아름답다)
  - 미스 사이공 中 The last night of the world(세상의 마지막 밤) - 2중창
  - 레미제라블 中 Star(별)
  - 레미제라블 中 A heart full of love(사랑의 마음 가득히) - 2중창
  - 레미제라블 中 Bring him home(그를 집으로)
- 즐거운 건전가요
  -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 깊은 밤을 날아서
  - 붉은 노을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2. 11. 14(수) ~ 15(목) 10: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구 천(예술감독 겸 지휘자)  
지 휘 한성용(부지휘자)

※ 본 공연은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획 공연으로 울산지역 고등학교의 단체관람만 가능합니다.

# 2012 수능음악회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11. 15(목) 17: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롯데삼동복지재단과 울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 청소년음악회 시네마 콘서트

지휘 김중규(부지휘자)  
입장료 전석 무료

※ 본 공연은 교육청을 통해 선정된 고등학교 재학생만 관람 가능합니다.



## 롯데삼동복지재단과 울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울산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

이번 11월 15일(목) 오후 5시에는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지원,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지원, 기관 지원, 주민 문화 /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롯데삼동복지재단과 울산지역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 항상 새로운 변신을 추구하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 기획한 특별음악회로 울산지역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공연장 예절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음악회는 16일(금) 오전 10시 30분에도 수능시험을 마친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차례 더 연주될 예정이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 program

#### 오프닝

빌리 엘리어트 /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中 피날레

####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1악장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 1악장

#### 시네마 성악곡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파리넬리 / 헨델 '리날도' 중 '날 울게 하소서'  
쇼생크 탈출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증창'

#### 아시아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 엘가 '사랑의 인사'  
4월 이야기 /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5번'

#### 'Star Wars' Suite for Orchestra

1. 메인 타이틀 Main Title
2. 레이아의 테마 Leia's Theme
3. 제국의 역습 The Imperial March
4. 요다의 테마 Yoda's Theme
5. 엔딩 타이틀 Throne Room & End Title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의 주인공

# 잉거마리 울산내한공연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감미로운 목소리!

일 시 | 2012. 11. 16(금) 20: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보컬리스트

잉거 마리 Only For You, Korea!

가을의 감성을 깊이 자극하는 서정성과 포근함이 담긴 보이스의 주인공 노르웨이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잉거 마리가 울산을 찾는다. 몇 번의 한국투어공연이 있었지만 지방투어공연은 이번이 처음으로 11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가을의 재즈 메신저 잉거마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신창곡!

사실 2006년 이후 매해 한국을 찾는 그녀지만 한여름이 지나 조금씩 추워질 무렵이 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라디오, 인터넷 등 여러 곳에서 그녀의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의 가을은 그녀와 함께 시작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09년 3집 앨범(My Heart Would Have A Reason) 이후 그녀가 그 어느 앨범보다도 많은 정성을 쏟은 4집 앨범의 발매 기념 공연으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새 앨범이 발매되며 울산에서 첫 공연을 갖는다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 김호영의 뮤지컬 파티

김호영의 특특 튀는 '뮤지컬 파티' 로의 초대!

일 시 | 2012. 11. 8(목) 20: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출 연 | 김호영, 김준현, 박은미, 아이린(뮤지컬 앙상블팀)

입장료 | 전석 1만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김호영 군입대 작전 **마지막 콘서트!** 국내 탑클래스 뮤지컬 배우 **김준현, 박은미** 출연!

특특 튀는 2012 스위트콘서트 시즌5가 11월에 울산시민을 찾아온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 기획공연인 스위트콘서트가 11월 8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에서 '김호영의 뮤지컬 파티'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사회를 맡아 스위트콘서트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뮤지컬 배우 '김호영'의 사회로 뮤지컬 작품, 뮤지컬에 얽힌 각종 비하인드스토리, 최근 뮤지컬계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넘버들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이 날 공연에는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준현, 박은미가 출연하여 유명 뮤지컬 명곡들을 들려준다. 그 외에도 뮤지컬앙상블팀 '아이린'이 출연하여 뮤지컬 속의 음악과 화려한 뮤지컬 군무도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매회 매진되는 인기몰이와 함께 울산 뮤지컬 팬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공연도 무대와 객석 간의 경계를 허무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그 열기가 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영"의 시원한 입담과 재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친구, 남편, 직장 동료들과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시길 바란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등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올해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과 최정원의 진행으로 6회에 걸쳐 공연되고 있다. 이번 11월 8일 공연은 김호영의 군입대전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사회 김호영

▶ 김준현

▶ 박은미



# 추억의 명곡 콘서트 향수

일 시 | 2012. 11. 22(목) 11: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 〈출연진 소개〉

#### \* 둘다섯

1974년에 데뷔한 남성 통기타 듀오. 이두진과 오세복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팀 이름을 지었다. 황순원의 소설〈소나기〉의 여 주인공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누이를 연상시키는 노래 '긴 머리 소녀'라는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오세복, 김승완 구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 활동 : 1974년 긴머리 소녀, 밤배, 1976년 제2집 일기, 1977년 제3집 얼룩 고무신
- 히트곡 : 밤배, 일기, 눈이 큰아이, 얼룩 고무신, 먼 훗날, 긴머리 소녀

둘다섯 7080 추억의 콘서트 열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커피 전문점이 있다면 1970~80년대,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그때 그 시절 오로지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접했고 음악 다방을 찾아 DJ 진행으로 음악을 들었던 그 노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7080 콘서트가 11월 22일 11시에 울산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에서 아홉 번째 모닝콘서트로 찾아온다.

요즘 1970~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문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흘러간 가요를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젊은 가수들이 늘고 있고, 대중매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잊혀져 가던 옛 가수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그때 그 시절을 함께 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둘다섯의 노래를 듣고 옛 추억을 되살리며 깊은 감성에 젖어 들 수 있는 콘서트를, 젊은 세대들에게는 과거의 대중문화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콘서트로 과거에 즐겨 들었고 현대에는 명곡으로 주목 받고 있는 노래들을 DJ의 진행으로 통기타 반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 둘다섯은 그 들의 히트곡인 얼룩 고무신, 밤배, 나는 못난이, 눈이 큰아이, 긴머리 소녀, 내 고향 충청도, 그건 너 등을 부를 예정이다. 또한 DJ가 등장해 중간 중간에 사연을 전해주면서 재치 넘치는 멘트와 함께 노래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울산시립합창단 제80회 정기연주회

# Così Fan Tutte

## 코지 판 투떼

12.1(토), 2(일) 오후 4시 울산예술회관 소공연장

예술감독 겸 지휘 구 천 / 연출 박미애



# Arts Friend

## Part.1 예술을 말하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상파울루

이탈리아 오페라(1) - 벨칸토 오페라 & 로시니

렘브란트의 <아간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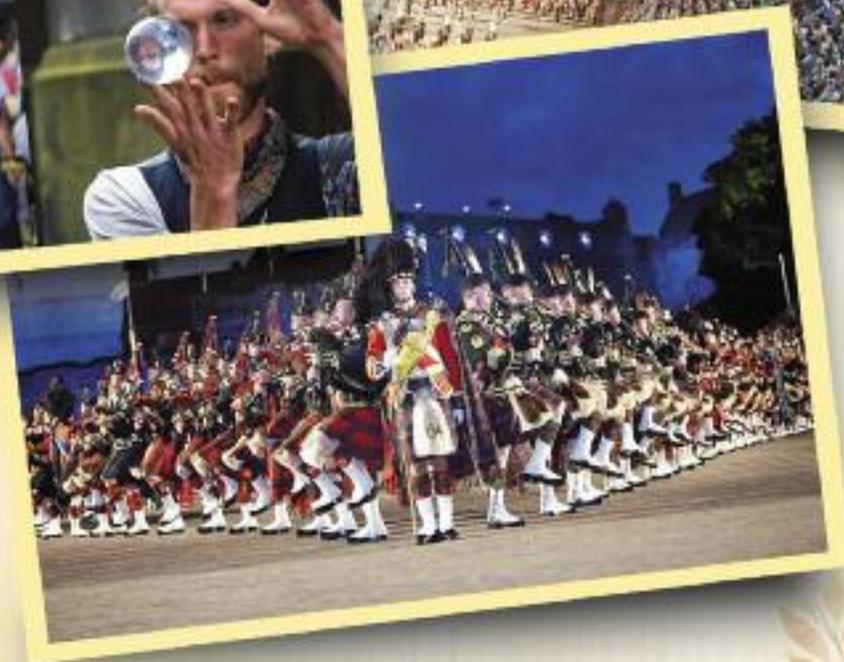
'사계'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한 음악가 '비발디'

## Part.2 11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11월의 공연·전시

영국의 또 다른 멋  
**에든버러 페스티벌**  
Edinburgh Festival





2012년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에 하계 올림픽과 연이은 장애인 올림픽 개최로 1년 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 드러난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필두로 영국의 자랑 비틀즈, 퀸, 조지 마이클, 뮤즈, 스파이스 걸즈는 물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007의 제임스 본드, 해리포터, 스타 패션모델 나오미 캠벨, 케이트 모스 등 영국이 가진 문화 아이콘을 총동원해 문화 강국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영국(United Kingdom)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국입니다. 올림픽 때 보았던 영국 국기는 '유니언 잭(Union Jack)'으로, 이들 4개국은 각기 다른 국기와 수도(우리 축구팀이 일본을 누르고 동메달을 따낸 카디프는 바로 웨일즈의 수도입니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도 사뭇 다릅니다. 말끔하게 신사복을 차려입은 이들이 잉글리시를 대변한다면, 킬트와 백파이프는 스코티시를 대변하죠.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Edinburgh)는 세계 공연예술계의 또 다른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 또 다른 영국, 스코틀랜드

아직도 그 사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모 사탕제품 광고에 체크 무늬 치마를 입은 남자들이 깃털이 달린 높다란 모자를 쓰고 파이프처럼 생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전통의상인 킬트, 그리고 민속악기인 백파이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든버러인데요. 에든버러는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든버러에 들어서면 바위산에 우뚝 솟아 있는 '에든버러 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수 백 년에 걸친 잉글랜드와의 전쟁을 대변하듯 화려함보다는 요새로서의 투박함과 견고함이 묻어나는데요. 에든버러 성을 중심으로 한 올드 타운은 중세 도시 에든버러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느낌의 잿빛 도시는 킬트, 백파이프와 어우러져 영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스코틀랜드만의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죠.

에든버러공항은 있지만 한국에서 직항 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런던을 비롯해 유럽의 수많은 도시에서 에든버러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 런던에서는 킹스크로스 역에서 에든버러 웨벌리 역까지 기차로 4~5시간, 빅토리아 코치 정류장에서는 버스로 9시간 여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런던 주요 도시에서 에든버러로 야간에 이동하는 버스가 있는데요. 여느 관광객이 그렇듯 에든버러도 여름 축제 기간이면 숙박비나 교통비가 크게 오릅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지만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면 야간버스는 숙박비까지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세계 공연예술인들의 축제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연쟁이들에게 에든버러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3주 정도 열리는 <에든버러 페스티벌(<http://www.edinburghfestivals.co.uk>)> 때문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다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48년 런던에서 시작됐는데요.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그에 앞서 1947년, 세계대전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대다수 축제들이 그렇듯 <에든버러 페스티벌>도 클래식음악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에든버러가 축제의 도시로 자리를 잡은 데는 클래식 위주의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보다 각종 퍼포먼스와 아마추어 공연이 주를 이루는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의 공이 컸습니다.

'프린지(fringe) - 주변, 변두리, 비주류' 라는 단어의 뜻처럼 <프린지페스티벌>은 1947년 당시 <국제페스티벌>에 초청 받지 못한 팀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펼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국제페스티벌>이 공식 초청으로 이뤄지는 공연이라면, <프린지페스티벌>은 누구나 와서 소극장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덕분에 에든버러 성으로 향하는 로열마일 거리는 각종 공연을 펼치는 팀과 이를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항상 장사진을 이룹니다. 오페라와 클래식 연주회, 연극, 발레, 재즈, 각종 퍼포먼스까지 에든버러는 공연예술의 집결지인 것이죠.

### 에든버러 축제의 백미 '밀리터리 타투'

축제 기간 중 가장 인기 있는 공연 중의 하나는 바로 '밀리터리 타투(Military Tattoo)'입니다. 에든버러 성을 배경으로 킬트를 입은 수백 명의 경기병이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모습은 스코틀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죠. 페스티벌이 끝나면 BBC에서 공연을 방영해줄 정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는 '밀리터리 타투'에는 세계 각국의 군악대들이 참여하는데요. 올해도 미국, 호주, 중국, 폴란드 등에서 재즈와 댄스, 영상, 불꽃놀이를 곁들여 각국의 멋을 흠뻑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군악대의 멋은 무엇보다 절도 있는 움직임 아닐까요? 군기 바짝 들어간 우리 군악대의 정교한 퍼레이드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밀리터리 타투' 관람의 또 다른 재미는 행사 시작 전 진행자가 각국의 관람객들을 부르고 객석에서 화답하는 모습인데요. 3~4년 전부터 '코리아'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격들도 온화하여 한국인 관람객들의 화답이 크지는 않은데요. '코리아'를 부를 때 속 쓰러워 하지 말고 우렁차게 화답해 보자고요. 공연의 티켓(<http://www.edintattoo.co.uk>)은 인터넷을 통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티켓 오픈과 함께 일찌감치 매진되지만, 종종 현장에서 티켓을 구할 수 있으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대부분 중간 자리가 가격이 가장 비싸지만, 외곽에서도 군악대의 행진을 관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위쪽 자리는 마지막 불꽃놀이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상상 이상의 도시 에든버러

에든버러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많은 영국인들이 에든버러 예찬에 빠졌습니다. 축제만 관심 있던 저는 워낙 작은 일에도 '리블리(lovely), 판타스틱(fantastic), 브릴리언트(brilliant)'를 외치는 그들의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에든버러에 도착하니 이들 단어 앞에 '앱솔루틀리(absolutely)'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에든버러는 영국 내에서도 요크와 바스에 이어 살기 좋은 도시,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에든버러는 도시 중앙의 프린시스 거리를 중심으로 올드 타운과 뉴 타운으로 나뉘는데요. 관광지가 몰려 있는 올드 타운은 물론이고 쇼핑몰과 레스토랑, 박물관들이 가지런히 들어찬 뉴 타운도 즐길 거리로 넘쳐납니다. 영국 관광 때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이 무료라는 점 이죠. 거리가 한산한 오전에는 에든버러의 갤러리를 방문 해 보세요. 국립 스코틀랜드 미술관은 1850년에 세워진 네 오 고딕 양식의 건물로, 르네상스부터 후기 인상파까지 유럽 회화 이외에 스코틀랜드 예술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고요. 국립 현대미술관은 베이컨, 허스트, 호크니, 피카소 등 스코틀랜드 최고의 컬렉션을 소장한 미술관입니다. 또 스코티시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는 스코틀랜드 비극의 여왕 메리와 시인 로버트 번스를 비롯해 배우 손 코넬리 등 스코틀랜드 저명인사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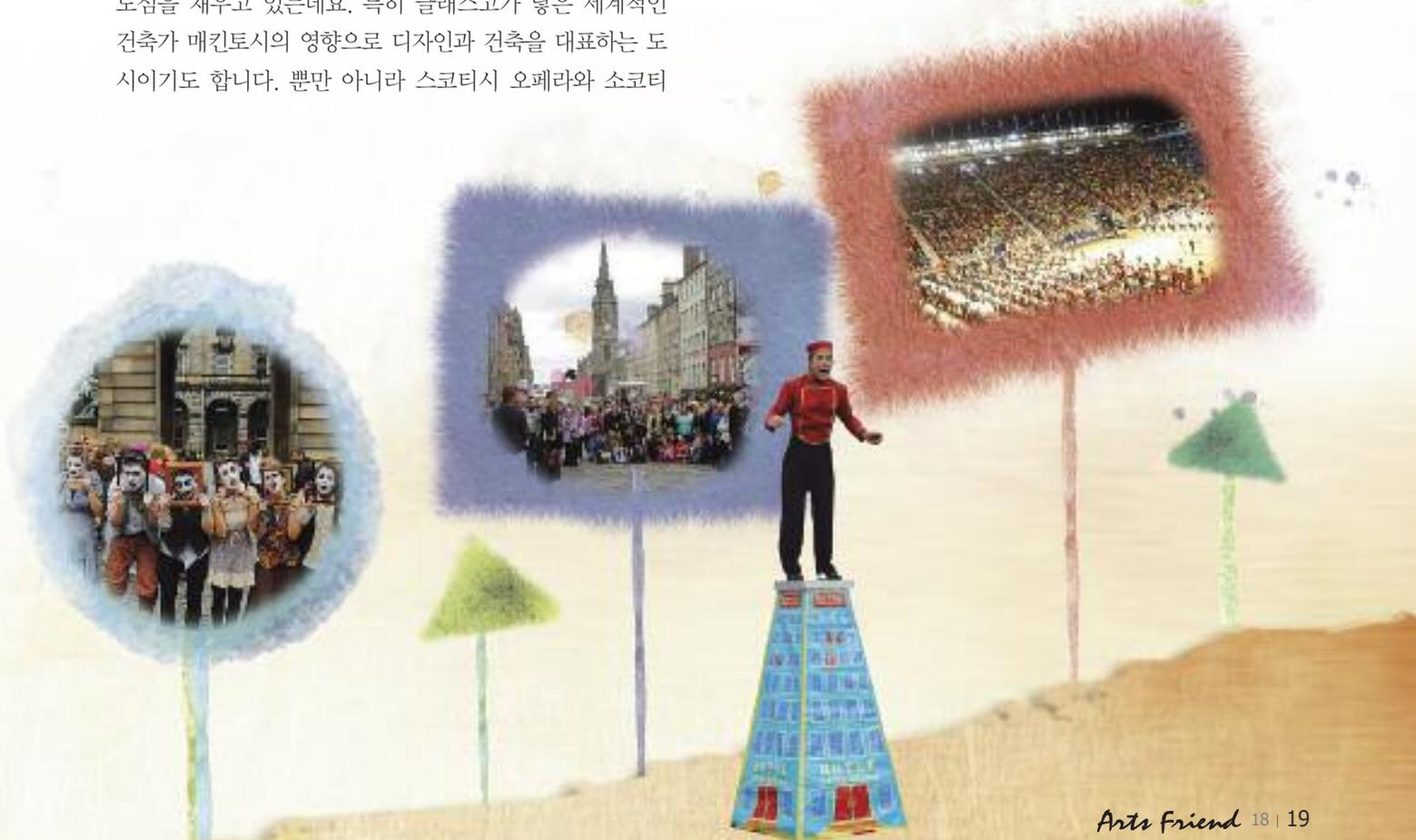
시간이 있다면 에든버러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글래스고(Glasgow)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래스고는 스코틀랜드 경제의 중심 도시로, 에든버러와 달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부를 상징하는 호화로운 건물이 도심을 채우고 있는데요. 특히 글래스고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매킨토시의 영향으로 디자인과 건축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티시 오페라와 소코티

시 발레단의 홈타운으로, 교향악단도 3개나 있을 정도랍니다. 매킨토시가 모교를 위해 설계한 글래스고 미술학교나 램브란트와 보티첼리, 모네, 피카소 등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켈빈그로브 미술관 & 박물관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여름은 한낮에도 30도를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에든버러는 런던보다 상당히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소매가 긴 겉옷과 우산, 선글라스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밀리터리 타투'를 볼 때는 중간에 퇴장이 불가능하고 우산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비옷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영국이지만 잉글랜드와는 또 다른 느낌의 스코틀랜드. 내년 여름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뜨거운 태양을 피해 선선한 잿빛도시, 하지만 축제로 뜨거운 도시, 에든버러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글 | 윤하정**

KBS 앵커, 조흥은행 아나운서, TBS 방송기자 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주) 좋은콘서트·삼성전자 웹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획을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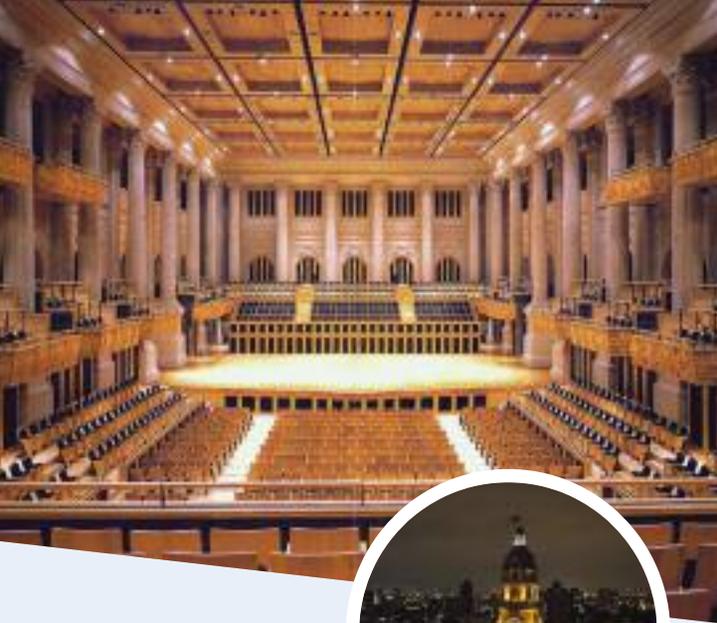
# 심파옥루

문뜩은 기차역은 개걸해 콘서트홀로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지금은 백지화되고 말았지만 서울시에서 노들섬에 서울시향을 위한 심포니 전용홀과 함께 오페라 극장을 짓는 계획이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교통이 불편한 한강의 외딴 섬보다는 서울시청이나 서울역을 리노베이션해서 서울시향 전용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 시청 건물은 신청사를 그 자리에 지으면서 허물려고 했으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외관만 살려 놓은 상태로 구서울역사는 문화관광부가 리노베이션해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의 전시, 이벤트 공간으로 꾸몄다. 서울시청이나 서울역을 콘서트홀로 리노베이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상파울루에도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가을 브라질 상파울루 주지사 마리오 코바스는 집무실에서 지휘자 존 네슬링을 만나 상파울루 심포니 음악감독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문화국장 마르코스 멘도카도 함께 자리했다.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이민 2세로 태어난 네슬링은 이탈리아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이었다. 유럽으로 떠나기 전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극장에서 오페라 지휘자로도 활약했었다. 네슬링은 코바스 주지사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단원 월급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고 심포니 전용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인구 1,800만명의 상업 도시 상파울루는 그때까지 변변한 콘서트홀 하나 없었다. 1954년 창단한 상파울루 심포니는 명색이 '주립 교향악단'이었지만 마땅한 무대가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다. 연습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다. 변변히 학교 교장과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다. 지휘자 네슬링은 "심포니 전용홀 없는 오케스트라는 전용 잔디구장 없는 프로 축구팀이나 마찬가지다. 자갈과 모래로 덮인 맨땅에서 연습하는 축구팀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바스 주지사는 3,500만 달러(약 340억원)의 예산을 내놓았다. 1997년 네슬링은 약속대로 상파울루 심포니의 사령탑을 맡기로 했다.

상파울루는 마침 대대적인 도심 재개발 계획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당국의 눈에 들어온 건물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오던 '홀리오 프레스테스' 역이었다. 커피 재벌이 산토스 항구로 커피 원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설치한 소로카바나 철로의 종착역이었다. 19세기 중반 브라질 경제는 커피 수출이 이끌었다. 커피 농장이 항구나 수도에서 점점 멀리 떨어진 내륙에까지 개발되다 보니 물자 수송이 문제였다. 당시엔 커피 원두를 가득 채운 자루를 노새에 실어 매일 20km 이상을 험한 산길로 다녔다. 상파울루에서 180km 이상 떨어진 커피 농장에선 수송비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

철도망은 1867년에 완성되었다. 하지만 영국 재벌이 투자한 것이어서 정부에서는 운영권까지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브라질인들이 상파울루 철도회사를 따로 설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커피 재벌과 면화 생산업자들이 손을 잡고 철도 노선을 산골 깊숙이 연결했다. 하지만 노선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투아나와 소로카바나 두 회사가 양분되었다. 소로카바나 철도회사는 1875년에 출범했다. 헝가리 출신 사업가 루이스 마테우스 마일라스키가 브라질 정부의 도움으로 운영 자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경



영 악화로 엄청난 부채만 떠안게 되었다. 1880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 때문에 재정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대 주주였던 정부가 개입하여 상파울루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 운영권을 넘겼다. 같은 해 12월 브라질의 부호 프란치스코 데 파울라 마이링크가 소로카바나 철도를 인수했다. 마이링크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를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여 영국 소유의 상파울루 철도 회사에 타격을 줄 생각이었다. 1892년에는 부채에 허덕이던 경쟁 업체 이투아나 철도까지도 합병했다. 1895년 정부는 브라질 서부 지역에서 산토스로 연결되는 철도 건설을 승인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회사의 재정 악화만 초래했다. 회사 내에 횡령과 착복이 횡행했다. 1901년에 다시 정부가 개입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1907년에는 프랑스와 미국 합작의 회사가 들어왔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1919년 상파울루 주정부가 소로카바나 철도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상파울루 시내에 종착역을 만들고 노선을 증설하는 등 1920년대에는 소로카바나는 전성기를 맞는다. 산토스까지 철로를 놓으려던 마이링크의 계획도 1938년에 드디어 실현되었다.

홀리오 프레스테스 역은 1938년에 문을 열었다.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소로카바나 철도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 사이에 뉴욕 증시의 폭락과 1932년 상파울루 혁명이 일어났지만 끄떡없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물자와 장비 수입이 중단되면서 1948년 문을 닫게 되었다. 역을 설계한 건축가 크리스티아노 스토클러 다스 네베스는 루이 16세 스타일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구사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주에 있는 기차역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25년에 설계가 끝났지만 건축에 13년이나 걸렸다. 1938년 기차역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상파울루 시민들은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해 철도 이용률이 낮았다. 1971년 국영 철도로 병합되었고 1980년대부터 8호선(다이아몬드) 시영철도(CPTM)의 종착역으로 지금도 전철이 다니고 있지만 주변은 슬럼가로 낙후되고 말았다. 1990년대에는 정치 집회나 이벤트 장소로 사용했다.

다른 부실 철도까지 떠맡으라는 정부의 요구에다 자동차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송객도 줄어들면서 철도는 사양 산업이 되고 말았다. 상파울루의 철도 회사를 합병한 페파사(Fepasa)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파울루 주정부는 불어나는 부채를 막기 위해 1998년 4월 페파사를 연방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대합실로 쓰던 공간에는 야자수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전성기에는 실제로 간이 음악회가 열리던 곳이다. 이 역은 철도원 출신으로 상파울루 시장과 대통령 후보를 지낸 홀리오 프레스테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1964~83년 군부 독재 시절엔 반정부 투쟁을 벌이던 시위 주도자들을 잡아들이던 정치사회안전국이 이곳에 본부

를 차리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기차 역사를 상파울루 주정부의 문화부가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문화시설로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허락했다.

미국의 음향 컨설턴트 존 리셀은 프레스테스 기차역 대합실을 방문한 뒤 무릎을 쳤다. 장방형의 구조 자체가 빈 무직페어라인 등 구두상자 모양의 19세기 유럽의 전형적인 콘서트홀에서 볼 수 있는 규격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건축가가 수십년 후에 콘서트홀로 개조할 것을 염두에 두었을 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가능할 정도였다. 1999년 7월 9일 존 네슬링이 지휘하는 상파울루 심포니가 말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연주했다. 버려진 기차역 대합실이 첨단 시설을 갖춘 콘서트홀 '살라 상파울루'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객석에는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 브라질 대통령 내외도 참석해 감격의 기쁨을 나눴다.

'살라 상파울루'와 같은 건물에는 상파울루 심포니의 연습실과 18, 19세기 브라질 작곡가들의 작품과 관련 기록을 보관 중인 음악 아카이브와 실황 녹음은 물론 스튜디오 녹음이 가능한 레코딩 스튜디오가 들어서 있다. 이 모두를 가리켜 '홀리오 프레스테스 문화 센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콘서트홀로 바뀐 대합실은 철도와는 무관하지만 지금도 불과 3m 떨어진 곳에 기차가 다니고 있다. 바깥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방진 공법을 채택했다. 건물 바닥을 판 다음 여기에 흡음력이 뛰어난 브라질산 호두나무 원목으로 쓴 두께 15cm의 콘크리트 벽체 안에 네오프렌(합성고무의 일종)을 넣었다. 콘서트홀 객석 주변을 여러 개의 문과 대기실로 겹겹이 에워쌌다. 기차역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길은 두터운 유리벽으로 차단했다. 객석수는 1,499석(입석 10석은 별도) 규모다.

32개의 코린트 양식의 대형 기둥 사이에 22개의 발코니석과 박스를 배치했다. 무대와 객석 의자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갖췄다. 높이 25m의 가변형 천장 패널 15개는 무게만 각 7.5t짜리로 위 아래로 움직인다. 콘서트홀 내부의 용적을 1만2,000m<sup>3</sup>에서 2만8,000m<sup>3</sup>까지 조절해 공연 장르에 따라 잔향(殘響)시간을 맞춘다. 잔향 시간은 길이 8m짜리 26개의 형질 배너로도 조절할 수 있다. 지붕은 기존의 구리를 걷어내고 열과 소음을 차단하는 타일, 유리 대신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천장을 덮었다. 천장과 무대, 바닥, 음향반사판, 발코니석, 에어컨 시설 등 새로 보태진 구조물의 무게는 무려 230t. 이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상부 구조도 보탰다.

실내 정원으로 꾸며진 옛 대합실 주위로 건물을 받쳐주던 돌기둥을 1,000t의 철제빔과 4.5t의 모래를 추가해 보강했다. 공사에는 1만5,000m<sup>3</sup>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12층짜리 건물 12개를 지어도 충분한 건축 자재다.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콘크리트에 사용된 모래도 1926년 공사 때와 같은 것을 구했다. 살라 상파울루는 인근에 자리 잡은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성화(聖畫) 박물관과 함께 문화예술센터를 이루고 있다.



# 벨칸토 오페라 & 로시니 이탈리아 오페라(1)

글 |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

오페라는 오늘날까지 대략 25,000여 작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절반이 이탈리아 오페라이다. 이번 호부터는 이렇게 오페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 1.벨칸토 오페라 & 로시니, 2.도니제티 & 벨리니, 3.베르디, 4.푸치니 & 베리조모 오페라 순 - 글을 실을 예정이다.

---

1597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처음 탄생한 오페라는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오페라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음악적인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관객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아 당시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 오페라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선율미는 벨칸토 오페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예술사조로는 낭만주의 시대와 맥을 같이하는 벨칸토 오페라와 그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작곡가 로시니(Gioachino Antonio Rossini, 1792~1868)에 대해 알아본다.





# The history of the Opera



18세기 후반 낭만주의 사조가 전 유럽에 도래하면서 낭만주의자들은 르네상스시기 귀족들이 그리스로마 시대를 동경한 것처럼 중세문화를 예찬 하였다. 낭만주의 시대의 이러한 중세 지향은 문화와 예술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낭만주의 특징으로는 당시 힘든 현실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초자연적이며 천상적인 것에 대한 환상, 기이한 광기와 천재성에 대한 선호 등을 들 수 있다. 건축에서는 중세 고딕풍의 건축양식, 문학에서는 월터스콧의 역사소설이나 바이런의 시 등이 인기를 얻었다. 오페라에서 낭만주의는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86~1826)의 '마탄의 사수' 등으로 출발하여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의 벨칸토 오페라로 꽃을 피웠다.

벨칸토 (Bel Canto)는 아름다운(bel) 노래(Canto)라는 이태리어이다. 본래 벨칸토는 17세기 중엽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로시(Luigi Rossi, 1597~1653), 카리시미(Giacomo Carissimi, 1605~1674) 등이 당시 오페라가 너무 대본 중심이었던데 대한 반동으로 제창한 단선율 위주의 서정적이며 애상적인 창법을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는 고난이도의 화려한 창법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벨칸토시대란 오페라에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오직 성악가의 가장 실력만을 중시하던 시대였다. 성악가가 인간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극한의 기교를 동원하여 고난이도의 멜로디와 화려한 장식음 등을 부드럽고 우아하며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을 말한다. 강약의 폭이 좁아 가수가 큰 음량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성량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가사

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중요했으며 악보에 적힌 것 이외에 가수들이 자신의 기교를 발휘할 수 있게 조절해서 부르는 창법이다. 벨칸토 창법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넓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면서도 그 음들 사이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명료하게 노래하는 레가토 주법이다. 이를 통해 때로는 악기와 인간의 목소리를 경쟁하듯이 노래를 불렀고 이런 광경에 관객들은 열광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 로시니는 벨칸토 가수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과거 이탈리아 명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에게서 탁월한 창법을 완벽하게 익힐 것. 두 번째, 벨칸토오페라에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를 때는 아무리 고난이도의 대목이라 할지라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부르는 것처럼 관객들이 느끼게 할 것. 세 번째, 전체 성역에서 자연스럽게 고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것.

벨칸토 오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 로시니는 특히 낭만주의 시대 벨칸토오페라의 물꼬를 튼 작곡가로서 오페라의 변천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 뛰어난 호른과 트럼펫 주자인 아버지와 소프라노 가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시니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 음악교육을 받았다. 그는 이미 12세 때는 현악4중주 소나타를 작곡하여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었다. 이후 볼로냐 음악학교에서 첼로와 대위법을 공부했고, 노래는 물론 첼발로, 바이올린, 비올라, 호른 등 악기 연주에도 능했다.



1806년 첫 오페라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 1810년 단막의 오페라부파 ‘결혼 어음’, 1812년 ‘시금석’, ‘비단사다리’, 1813년 ‘탄크레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등을 작곡하면서 로시니의 명성은 베네치아, 페라라, 밀라노 등 이탈리아 전역에서 확립되었고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24세 때 작곡한 그의 대표작 ‘세비아의 이발사’는 단 13일 만에 작곡되었다. 엄청난 다작가였던 로시니는 37세가 되던 1829년 ‘윌리엄 텔’을 마지막으로 20년간 그는 수많은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 이후 그는 37년을 더 살았지만 오페라는 단 한 편도 쓰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오페라 작곡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작품을 노래할 성악가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의 오페라는 첫 부인 이사벨로 콜브란을 비롯하여, 당대의 주요 성악가에 맞춰 작곡되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벨칸토 창법을 익힌 성악가들이었으나, 벨칸토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 창법을 익히는 가수가 점차 사라져갔고 결국 로시니는 오페라 무대를 떠나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로시니는 오페라 형식면에서는 오페라 세리아, 드라마 지오코소, 오페라부파 등 오페라 각 장르의 규칙을 새로이 독특하게 만들어 놓았다. ‘오텔로’, ‘탄크레디’에서는 오페라 세리아의 통상 구조를 현저하게 확대시켰으며 ‘이집트의 모세’에서 로시니 이전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역할을 발전시켰다. 1819년에는 윌터 스코트의 작품에서 ‘호수 위의 미녀’를 대본으로 낭만주의 오페라를 탄생시켰다. 1829년 작곡한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 ‘윌리엄 텔’은 실러의 희곡을 대본으로 작곡하였는데 이 작품은 기교적이기보다는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풍성하게 넣은 정치적, 낭만주의적인 드라마로 새로운 유형의 프랑스 오페라를 수립하였다.

로시니는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아 당대 이탈리아 작곡가들과 달리 관현악법에도 정통했고, 그의 음악은 달콤한 멜로디에 화려하면서도 절묘한 리듬으로 관객들을 압도하였다. 또 시대적으로 18세기 고전주의와 19세기 낭만주의 두 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그는 오페라에서 익살과 조롱을 가지면서 때로는 교활함과 음침함을 내포하는 웃음과 풍자를 모두 표현하였다. 그의 오페라의 대사는 당시 귀족 계급과 당시 사회상을 신랄하게 묘사했다. 또한 서민층을 모델로 한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등은 사실적이었다. 그는 오페라의 내용과 형식, 벨칸토 창법에 열중한 음악어법 면에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뒤에도 종교음악과 가곡, 실내악곡 등을 틈틈이 썼고, 이전에 작곡한 오페라의 재상연을 위한 손질도 로시니 본인이 맡았다. 그는 오페라 40편, 칸타타 14편, 기악곡 21편, 성가곡과 세속기악곡 등을 다수 작곡하였다.

렘브란트의

## 야간순찰

글 |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렘브란트, 〈야간순찰〉, 1642, 캔버스에 유채, 363x437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경찰이나 정규군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공동체의 치안은 민병대 같은 자경 조직이 담당했다. 이는 비상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방어에 동원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군사 훈련을 받은 시민들의 군사 조직이다. 오늘날에도 비상시 지역 방위에 동원되는 제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의 향토예비군 제도도 그 예의 하나이다. 이는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지만, 라이온스 클럽 같은 봉사 조직의 성격도 띠고 있다. 시민 문화가 꽃피었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민병대 활동이 활발했고, 이들은 충을 소지하고 발포할 수도 있어 한 도시의 치안을 실제적으로 담당했다.

공동체의 안녕을 수호하는 민병대에 소속되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로운 일이었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집단 초상화로 남겨 기념하는 것을 즐겼다. 부유한 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시장이 발달했고, 기존의 서양 미술의 주요 주제였던 종교적 주제나 신화, 역사를 다룬 그림 보다는 이들의 구미에 맞는 초상화나 정물화, 풍경화가 더 인기 있

었다. 특히 집단 초상화는 네덜란드의 발명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 크게 유행했다. 집단 초상화로는 식구들의 모습을 한 폭에 담은 가족 초상화도 있었지만, 도시의 민병대나, 의회, 직업 협동조합인 길드, 자선 모임 등을 그린 것도 많았다. 초기에 그려진 집단 초상화를 보면 사람들이 나란히 열 지어 서 있거나, 탁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고, 그림 속 인물들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멋진 옷이나, 가구, 장신구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게 되었고, 이 중 가장 혁신적인 작품이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의 〈야간순찰(The Night Watch)〉이다.

여러 번 덧칠한 니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져 밤의 풍경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붙인 〈야간순찰〉이라는 별명이 제목으로 굳어졌지만, 사실은 한낮에 부대가 출격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프랑스 반닝코크 대위의 중대(The Shooting Company of Frans Banning Cocq)〉라는 제목이 더 정확하겠



헬스트(Bartholomeus van der Helst), <암스테르담 민병대의 윈스터 평화조약 축하 연회(Banquet of the Amsterdam Civic Guard in Celebration of the Peace of Münster)>, 1648, 캔버스에 유채, 232x547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암스테르담 렘브란트 광장 전시, 2006-2009

지만 <야간순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민병대를 이끄는 반닝코크 대위와 부하들은 새로 지어진 회의실에 걸 집단 초상화를 당시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에게 주문했다. 그런데 그가 제작한 거대한 집단 초상화는 공개되자마자 큰 소동을 일으켰다. 당시의 집단 초상화는 일렬로 서 있는 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면 모두가 그림에 잘 나타나고, 위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렘브란트의 <야간순찰>은 이런 평범한 구도가 아니라, 제각각 행동하며 전진하는 역동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작품을 보면 중앙에 있는 세 인물, 즉 중앙의 두 남자와 왼쪽에 있는 한 소녀에 시선이 집중된다. 검은 옷에 붉은 허리띠를 맨 사람은 프랑스 반닝코크 대위이고, 그 옆에 노란 옷에 흰색 허리띠를 맨 이는 빌렘 판 라위턴뷔르흐 중위이다. 이들의 뒤로는 여러 민병대원들이 있고, 이쪽저쪽으로 비스듬히 들고 있는 중대의 깃발도 보인다. 대원들은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했다기보다는, 이제 막 행진을 시작하는 듯 무기를 들고 제각기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 민병대의 잔을 들고, 중대의 상징물인 수탉을 허리춤에 찬 노란 드레스를 입은 부대의 마스코트 같은 소녀나 난쟁이, 우왕좌왕하는 강아지까지 등장해 활기찬 분위기를 강조한다. 커다란 캔버스 안에서 저마다 움직이고 있는 실제 크기의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중앙의 밝게 빛을 받은 인물들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비는 작품을 더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인물들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작품 속 인물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 이런 극적인 효과로 <야간순찰>은 집단 초상화의 혁신을 이룬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생한 집단 초상화를 제작하고자 한 렘브란트의 새로운 시도는 당시에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빛과 어두움의 대비로 중앙의 인물들은 전신이 잘 나왔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배경에 묻혀 잘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얼굴이 가려지기도 했다. 당시 이런 집단 초상화를 주문하면 그 비용은 전체가 동일한 비용을 나누어 내기도 했지만, 그림의 가운데에 잘 나온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야간순찰>이 완성되어 공개되었을 때 몇몇 이들은 자기 모습이 어둠속에 묻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지불을 거부할 정도로 화가 났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 <야간순찰>은 수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말리는 이 작품의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에서 영감을 얻어 '밤의 음악'이라는 별명이 붙은 교향곡 7번을 작곡했고, 고다르나 그리너웨이 같은 영화감독들의 작품의 소재로도 등장한 바 있다. 지난 2006년에는 렘브란트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암스테르담의 광장에 <야간순찰>을 청동 조각상으로 입체적으로 재현한 작품이 하는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사계'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한 음악가

# 비발디

글 |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발디 음악이 주는  
매력이 무엇인지  
그가 남긴 협주곡들의  
체계를 선율로 느끼며  
그의 생을 음미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학창시절 음악시험으로 클래식 음악 듣기 시험을 친 적이 있다. 처음엔 무슨 영어 듣기 시험도 아니고 클래식으로 듣기 시험을 친다니 당혹스러웠다. 당시엔 클래식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어떻게 클래식 듣기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음악선생님께서 70여 곡 되는 클래식 곡명을 시험 범위라며 알려주셔서 해당곡이 들어있는 음반도 사고 또 테이프로 한 곡 한 곡 녹음을 해서 정말 열심히 들었던 거 같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테이프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무슨 곡하면 그 곡의 주제선율을 마치 암기과목 외듯 흥얼거리는 수준까지 갔었다. 단 순히 내신 점수를 따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클래식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소위 클래식 명곡이라고 소개되는 곡들이 알고 보니 영화나 CF를 통해 많이 접했던 곡들이란 점이 얼마나 신기한가. 클래식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그런 친숙한 클래식 곡들이 마냥 좋았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곡 그래서 더 좋아했던 곡 중의 하나가 비발디의 '사계' 다. 비발디하면 '사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곡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그의 대표곡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히는 곡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비발디는 그의 음악 외에 우리에게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거 같다. 생전에 고향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요즘의 대중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비발디가 왜 이렇게 안 알려진 것일까.

비발디(1678~1741)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교회 부속 오케스트라 악장의 아들로 태어나 15살 때 성직에 입문, 25살에 사제가 됐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던 그는 성당에서 미사를 접전하거나 설교



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발작이 일어 행사를 망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탓인지 미사를 앞두고 온 데간데없이 사라지기 일쑤였고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익힌 음악에 뜻이 있었던 터라 악상이 떠오르면 미사를 보는 도중이라도 미사복을 갈아입는 제의실로 뛰어 들어가 정신없이 악보를 적었다고 하니 신성하고 엄숙한 성당 분위기를 헤치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더구나 유전적으로 빨간 머리였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별나게 보였을까. 여튼 비발디는 천식을 이유로 사제직을 그만두고 이후 교회 부속 피에타 자선원의 교사가 돼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가르치게 된다. 이때가 비발디 음악 인생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 비발디는 이 곳에 머물면서 협주곡에 집중해 600여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베네치아는 보수적인 대륙과는 달리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개방적인 도시였다.

국제적인 관광도시였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랑의 결과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났고 비발디가 음악 교육을 담당했던 피에타 자선원이 바로 이런 결과로 태어난 의지할 데 없는 여자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이 곳에서 비발디는 소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끌었는데 소녀들 대다수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크게 안고 있었고 때문에 음악을 통해 재능을 뽐내고 치유받길 바랐다. 그래서 비발디는 이들을 위해 수많은 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썼다. 그리고 비발디 자신이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였기에 바이올린을 앞세운 작품이 가장 많았고 파곳, 첼로, 오보에, 플루트, 비올라 다모레, 푸라우티나, 리코더, 만돌린, 심지어 성악곡도 다양한 성부에 솔리스트를 배치해 누구든지 화려한 솔로를 뽐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비발디의 이런 성향이 베네치아를 들끓게 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 보기 드문 빨간 머리와 사제라는 신분엔 적합하지 않는 튀는 행동 때문에 비난 받는 것은 물론이었고, 머리 색깔만큼이나 자유분방한 생활로 자신의 악단 소속 고아들과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대 평론가 골도니가 비발디를 평한 것을 보면 당시의 비발디를 향한 시선을 읽을 수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만점, 작곡가로서는 그저 그렇고,

사제로는 빵집<sup>8</sup>이란 평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비발디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40대에 이르러 제자였던 메조 소프라노 안나 지로와의 염문 때문이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나의 동생 파올리네까지 가정부로 들여 세 사람이 한 집에 동거한 사실이 일대의 스캔들이 되어 결국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불우했는데 63살의 나이로 타국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빈자로 객사했다고 한다.

줄곧 수도원에서 지내온 성직자였으니 그를 정성스레 물어줄 피붙이가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미사용이다 행사용이다 해서 2, 3일마다 한곡씩 곡을 만들었고 베네치아의 피에타 자선원 교사시절 이미 작품이 출판돼 악보 출판 인세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게 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흐가 비발디의 악보를 구해 연구했을 정도로 온 유럽에 걸쳐 유명했던 비발디가 말년의 짧은 기간 무엇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생전의 인기가 무색하게 그의 음악은 오랫동안 잊혀졌다. 다시금 그의 음악이 재조명 받게 된 것은 분실됐던 악보가 20세기 초반 무더기로 발견되면서부터였고 재조명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 것은 그 후 1959년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 무지치가 내놓은 ‘사계’ 음반이 클래식 음반 사상 초유의 히트를 치면서였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크 음악과 원전 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발디 음악이 주목받게 됐는데 비발디 음악을 들어 보면 어느 것이나 비발디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다. 스트라빈스키가 비발디를 두고서 “똑같은 곡을 100번이나 쓴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비발디의 음악은 듣기엔 평이하지만 결코 연주하기 쉬운 작품은 아니었다. 스스로가 바이올리니스트였기에 무엇보다 연주자로서 뛰어난 기량으로 청중을 매료시킬 수 있는 현대의 명연주가 타입의 원형을 보여 주었고 그가 선보인 협주곡 형식은 바로크 협주곡의 모델이 되었다.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며 그의 음악 인생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 음악으로 사계절 변화를 그려낸 그의 탁월한 능력에 새삼 감탄하며 그의 또 다른 명작들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다.

# Arts Friend

## 공연·전시가이드

### PERFORMANCE

#### 제10회 우리소리예술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 1(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우리소리예술단

##### ■ 공연개요

자주 접하기 어려운 전통 민요의 보급과 단순히 서서 부르는 것이 아닌 민속놀이를 곁들인 노동요 등 다양한 레파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 ■ 프로그램

- 경기 잡가 제비가
- 연화무 경기민요(태평가, 작은 방아 타령)
- 진도북놀이
- 함경도민요(사철가, 신고산타령, 궁초맹기)
- 검무
- 경기민요(청춘가, 창부타령) 외 3곡

#### 창작합창음악의 밤

일 시 | 11. 2(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작곡가협회

##### ■ 공연개요

기존 합창음악의 고전적인 성격을 탈피한 다양한 변화와 시도로 현대적 합창음악을 작곡하여 새롭고 다양한 음악적 접근으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

##### ■ 프로그램

- 낙동강, 울산12경, 몰래, 강동 주전바다, 울산의
- 소호라 느티나무, 신불산, 온산, 암각화, 가자산 역새평원
- 울산사람, 춘향가, 기도, 사랑노래

####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복한 음악회

일 시 | 11. 3(토) 18: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 ■ 공연개요

• 울산지역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음악회  
• 울산에서 활동하는 전문연주자들과 실버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연

##### ■ 프로그램

- 동남아지역의 민속무용(다문화 공연단)
- 비록, 또 한송이 나의 모란(여성합창단) 등 공연

#### 창작무용 “능소화”

일 시 | 11. 3(토)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한국CAC무용연합회

##### ■ 공연개요

인간의 집착과 사랑에 함축된 의미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에 대한 여러 상황을 연출하고 이야기하고자 함

##### ■ 프로그램

- 서막 : 회상
- 1막 : 천상의 들
- 2막 : 운명
- 3막 : 빛과 그림자
- 4막 : 절망&그리움
- 5막 : 고독한 절계

#### 제10회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 4(일)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 청소년오케스트라

##### ■ 공연개요

매년 두 번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울산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 프로그램

- Overture "Der Freischutz"
- Carmen Fantaisie
- Trumpet Concerto in E Major
-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I. Allegro con brio, IV. Allegro 외 다수

#### 제3회 인사운드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 4(일)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인사운드 윈드오케스트라

##### ■ 공연개요

클래식 및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통해 울산시민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 프로그램

- SEDONA
- IN THE WINTER OF 1730
- INVICTA
- DANCING AMADEUS
- STEVIE WONDER
- 애니메이션 메들리 등 다수

#### 제4회 울산 시각장애인복지관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 6(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시각장애인복지관 합창단

##### ■ 공연개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합창곡 공연

##### ■ 프로그램

- 이 세상 사람 온 마음모아
- 지금 이 순간, 투나잇
- 자 걸어가자, 밝게 빛나는 노래
- 빛으로 여는 세상, 음악 너는 나의 친구
- 거위의 꿈, 아름다운 세상 외 다수

#### 계변천신설화Ⅲ

일 시 | 11. 7(수)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태화루예술단

##### ■ 공연개요

계변천신설화를 재해석하고 무용, 소리, 타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

##### ■ 프로그램

- 두드림(세상을 향해 문이 열리는 순간)
- 폐(관습에 얽매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 셋이 하나(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어 공존하는 화합의 장)

#### 제16회 울산 중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 7(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중구 여성합창단

##### ■ 공연개요

마음의 풍요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중구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 ■ 프로그램

- 귀뚜라미, 세노아
- 사랑, Je venx vivre
- 그대 눈 속의 바다, 제비꽃, 사랑합니다.
- Einekleine nacht musik Ist, 경복궁 타령
- 여자보다 귀한 거 없네, 아빠의 청춘 외 다수

#### 제2회 남성합창단 “울사내” 정기연주회

일 시 | 11. 9(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남성합창단 “울사내”

##### ■ 공연개요

관내 남성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로 다양한 합창음악을 선보임으로써 지역합창음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프로그램

- 대장간의 합창, 병사들의 합창, 투우사의 노래
- 실내악단 연주
- 성자의 행진, 깊은 강, Ave Verum
- 소프라노(테너) 독창
- 아바 메들리
- 사랑합니다, 망성리에서, 대왕암 송림

#### 제4회 울산CBS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 10(토)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CBS합창단

##### ■ 공연개요

한해를 보내며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지역사회에 합창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한

##### ■ 프로그램

- 무거운 짐진자들, 진실로
-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리고성
-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Hallelujah to the saint, Maitinata 등 다수

#### 제12회 (사)한국CAC무용연합회 정기공연

일 시 | 11. 10(토)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한국CAC무용연합회

##### ■ 공연개요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선보여 무용의 대중화와 울산 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공연

##### ■ 프로그램

- 한국전통무용
- 현대무용
- 생활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생활무용(힙합&팝핀) 외 다수



※ 공연일정은 주체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9회 프리모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 11(일)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프리모 청소년 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연주활동으로 클래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인으로 성장해 가는 데 목적을 둠
- 프로그램
  - Carmen Prelude
  - 백조의 호수 모음곡
  - 교향곡 8번 "미완성"
  - 태극기 휘날리며, 반지의 제왕 등 영화음악 다수

### 울산 피아노 아카데미 연주회

일 시 | 11. 13(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원  
 주 최 | 울산 피아노 아카데미

- 공연개요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
- 프로그램
  - Arabesque 제1번, 제2번
  - Clair de lune
  - Petite Suite 제1~4곡
  - La mer '바다' 1악장, 2악장, 3악장
  - Linderaja
  - Danse profane

### 영화미소합창단 창단 11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11. 15(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영화미소합창단

- 공연개요  
 4~50대 주부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 11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에 숭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 차를 마시네, 열매가 익어가듯, 작은 마음의 노래
  - 사랑합니다, 추심, 우리사랑
  - 님이 오신 날, 석불의 빈손, 촛불 외 다수

### Beautiful Life Wonderful Concert

일 시 | 11. 16(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삼성정밀화학

- 공연개요  
 한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공연으로 삼성정밀화학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흥겨운 재즈 공연 한마당
- 프로그램
  - 재즈파크 빅밴드 공연
  - 솔리스트, 보컬과 빅밴드의 협연
  - 삼성정밀화학 가족 특별 공연
  - 함께하는 화합의 공연

### 제23회 울산합창페스티벌

일 시 | 11. 17(토) 16:00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음악협회

- 공연개요  
 지역의 아마추어 합창단간의 음악적 교류를 통해 지역 합창 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창축제 형식으로 진행
- 프로그램
  - 1부 : 주니어합창단 공연(10개팀)
  - 2부 : 주니어합창단 공연(10개팀)

### 제7회 (사)한국CAC민속예술보존연합회

경기공연  
 일 시 | 11. 17(토)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한국CAC민속예술보존연합회

- 공연개요  
 단원들의 기량 및 울산 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울산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무용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공연 개최
- 프로그램
  - 입춤, 태평무
  - 소고춤
  - 경기민요 메들리
  - 울산한량무, 승무, 살풀이
  - 정고춤, 산조, 국악합주

### 제4회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 18(일)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박쥐 서곡
  - 루슬란 서곡
  - 아바
  -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 아리랑 모음곡 외 다수곡

### 락당 제18회 사랑나누기 콘서트

일 시 | 11. 18(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락당예술단

- 공연개요  
 울산 지역 정서에 맞는 창작 음악 및 무용 등을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콘서트
- 프로그램
  - 울산 12경 영상 및 음악
  - 락당 밴드 공연
  - B-boy Dance
  - 락당회원과 다문화 가족 공연
  - 창작 음악 발표 및 무용 등

### 열려라 클래식 "가곡의 왕 슈베르트"

일 시 | 11. 20(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울산오페라단

- 공연개요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작품 중 잘 알려진 작품을 선별해 연거푸 슈베르트로 등장하여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실제 연주 감상을 통해 재미있게 클래식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프로그램
  - 죽음과 소녀, 로자문데 서곡, 미완성교향곡(관현악)
  - 숨어, 마왕, 보리수, 세레나데(성악)
  -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외 다수

### 제15회 울산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 21(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연개요  
 건전하고 밝은 애창곡 합창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참신한 레퍼토리를 소개하며 지역 합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프로그램
  - 1부 : I will follow him, When I dream, 향수 아름다운 노래들, 보신탕, 천개의 바람이 되어
  - 2부 : 고향의 봄, 청산에 살리라, 하늘천따지 공주의 남자, 제비꽃 서시
  - 남성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찬조

### 뮤지컬 "맘마미아"

일 시 | 11. 23(금) 19:30 / 11. 24(토) 15:00 19:30  
 11. 25(일) 14:00 18:30 / 11. 27(화)~11. 30(금) 19:30  
 12. 1(토) 15:00 19:30 / 12. 2(일) 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주 최 | (주)울산방송

- 공연개요  
 ubc 울산방송 창사 15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
- 프로그램  
 무대는 그리스 지중해의 외딴 섬.. 젊은 날 한때 꿈 많던 아마추어 그룹 리더싱어였으나, 지금은 작은 모텔의 여주인이 된 도나의 보살핌 아래 홀로 성장해온 소피는 약혼자 스키타와의 결혼을 앞두고 아빠를 찾고 싶어하던 중 엄마가 처녀시절 쓴 일기장을 몰래 훑쳐보게 되는데...

### 제3회 타악퍼포먼스 새암 경기공연

일 시 | 11. 23(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5,000원  
 주 최 | 타악퍼포먼스 새암

- 공연개요  
 전통 국악 및 창작 타악 연주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 창작 공연을 활성화하고 전통의 깊이를 재조명 함
- 프로그램
  - 새암시나위
  - Sognatore
  - 궁 궁
  - 환 상

# Arts Friend

## 공연·전시가이드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엄영진 판소리 국악연구회 경기공연

일 시 | 11. 24(토)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엄영진 판소리 국악연구회

#### ■ 공연개요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경쾌한 노래를 얹어 부르는 가야금 병창을 주 공연 작품으로 기획

#### ■ 프로그램

- 성금연류 산조 및 꽃타령 병창
- 녹음방초
- 꽃과 사랑노래
- 썩대머리
- 퓨전 병창
- 남도민요(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 김미경 소리 콘서트 IV

일 시 | 11. 25(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주 최 | 김미경 판소리연구소

#### ■ 공연개요

진정한 소리의 맛과 흥에 빠져보고 부르며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소리 축제

#### ■ 프로그램

- 사철개(단가)
- 수궁가 I (판소리)
- 꽃타령, 뽕따러가세, 내 고향의 봄(가야금병창)
- 수궁가 II (판소리)
- 보령, 새타령, 진도아리랑(남도잡가)

### 제9회 울산교사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 27(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교사 오케스트라

#### ■ 공연개요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로 정통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프로그램

- 머리 하나 차이로
- 빼곡 알초
- 푸슈킨 스토리에 의한 뮤지컬 환상곡 "눈보라"
- 집시 왈츠
- 재즈모음곡 2번 중 "왈츠"

## EXHIBITION

### 이상민 울산의 풍경전

기 간 | 10. 30(화)~11. 4(일),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이상민

#### ■ 전시내용

울산광역시 인근에 있는 산, 바다, 들판 등 자연풍경을 화폭에 담은 구상미술 작품 30점 전시

### 신진옥 서양화 개인전

기 간 | 10. 30(화)~11. 4(일),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신진옥

#### ■ 전시내용

순수 평면회화 위에 오브제를 가미한 입체적인 현대회화 작품 30점 전시

### 단계 김인숙 개인전

기 간 | 10. 30(화)~11. 4(일),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김인숙

#### ■ 전시내용

문인화 기법과 채색 기법을 접목시켜 태화강 주변의 자연을 표현한 문인화 작품 30점 전시

### 김난 한국화 개인전

기 간 | 10. 30(화)~11. 4(일),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김난

#### ■ 전시내용

문맹인들과 현대문화의 만남으로 생겨나는 문화적 충돌을 테마로 하여 현대인들의 내면세계를 관조하면서 소통과 적응을 소재로 창작한 한국화 작품 40점 전시

###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정기전

기 간 | 11. 5(월)~11. 9(금), 5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현대미술작가회

#### ■ 전시내용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제12회 정기전으로, '腕'을 주제로 한 동양화, 서양화, 사진, 공예, 조각, 설치부문의 새롭고 실험적인 미술작품 200점 전시

### 아시아 섬유 예술전

기 간 | 11. 10(토)~11. 14(수), 5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아시아섬유예술가회

#### ■ 전시내용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섬유예술가들의 아홉 번째 섬유예술 전시회로서, 염색, 직조, 날염, 섬유설치, 혼합매체, 미디어아트 등 아시아 섬유예술 디자인 분야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 200점 전시

### 울산·충북 흑백사진교류전

기 간 | 11. 15(목)~11. 19(월), 5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울산흑백사진연구회

#### ■ 전시내용

울산과 충북지역 흑백사진연구회와의 교류전으로, 100년 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은염흑백사진작품 60점 전시

### 제38회 울산서도회 회원전

기 간 | 11. 15(목)~11. 19(월), 5일간

장 소 | 제2,3전시장

주 최 | 울산서도회

#### ■ 전시내용

제38회 울산서도회 회원전으로, 울산서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자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다각적으로 표현한 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 등 다양한 서예작품 100점 전시

### 제20회 울산전국사진 공모전

기 간 | 11. 15(목)~11. 19(월), 5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사진작가협회

#### ■ 전시내용

신진작가 발굴 및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20회 울산전국 사진공모전 작품을 공모·접수하여,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 입선 등의 입상 사진작품 100점 전시

### 제13회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 회원전

기 간 | 11. 20(화)~11. 25(일), 5일간

장 소 | 제2,3전시장

주 최 |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

#### ■ 전시내용

'내 마음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갖고 회원들의 마음속에 그려오던 동경 또는 이미지를 표출한 사진작품 200점 전시

### 제5회 울산민화사랑회 회원전

기 간 | 11. 20(화)~11. 25(일), 5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민화사랑회

#### ■ 전시내용

울산민화사랑회의 다섯 번째 정기전으로, 우리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인 까치와 호랑이를 비롯하여 신사임당의 조종도, 문자도, 책가도 등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생활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민화작품 60점 전시

### 제7회 울산서예협회 회원전 및 수상작가전

기 간 | 11. 26(월)~11. 30(금), 5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서예협회

#### ■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의 일곱 번째 정기전으로, 300여명 회원들의 개성 있는 서예작품 300점 전시

#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 스타일 완성!

##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http://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bling-bling art style.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